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산사서 달래볼까

9~10월 2017 전국 가을 산사음악회 '풍성'

해가 더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가을. 기분 탓도 있겠지만, 선선한 가을바람과 따뜻한 볕을 느낄 만하면 금세 불어오는 찬바람에 항상 어딘가 감질이 난다. 단풍이 채 들기도 전 벌써부터 가을이 끝날 걱정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가을 외투 챙겨 입고 산사로 가자. 선선한 밤공기와 감미로운 음악, 아늑한 달빛이 포근히 감싸 가을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할 테니. 가을 산사음악회 준비에 한창인 전국의 사찰들을 소개한다.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는 '제3회 흥국사 산사음악예술제'를 9월 23일 오후 7시부터 연다. 흥국사는 원융화쟁과 무애정토 사상을 주창하고 실천했던 원효 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여현아 前 BTN불교TV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인기 소리꾼 장사익과 친구들이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고양종교인평화회의 연합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진다.

흥국사는 "한민족으로서 분단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간직한 채 아직도 민족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엄중한 시기에 창건주 원효 대사의 화쟁원융 사상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02)381-7970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9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 · 조직 기능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불암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가수 한영애, 장미화, 진시몬, 박일남, 추가열, 임병수, 강여름, 주권기, 유송 등이 대거 출연한다. 또 불암사 합창단과 마하무용단, 동국대무용대학원 등도 무대에 오른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별도의 부대행사로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 '국화축제' 등도 마련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02)734-8050

양평 용문사는 '제17회 천년향기 나눔 산사음악회'를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경내 특별무대에서 개최한다. 불자가수 장미화와 오승근, 경기민요팀 예그리나, 소프라노 권성순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와 전통가요, 클래식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031)773-3797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는 '범능 정세현 음악에 물들다'를 주제로 9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내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사)불지불교문화원과 개천사가 주최 · 주관하고 화순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범능 스님 4주기 기념음악회로 마련됐다.

무대에서는 윤진철 명창의 판소리와 싱어송라이터 박강수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퓨전국악 앙상블 '련'은 범능 스님의 곡인 '추야몽'을 자신들만의 곡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뜬다.

범능 스님은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광주출전가' 작곡가이자 민중가수 정세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시인 김용택 · 도종환 · 고규태의 시로 곡을 만든 명상음악가로도 유명하다. (061)373-1301

강화 전등사는 '가을음악회'를 10월 14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변진섭, 알리, 화요비 등 실력파 가수들을 비롯해 국악인 남상일이 무대에 오른다. (032)937-0125

서울 관악구 관음사(주지 종하)는 합창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이웃과 함께하는 '2017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장용이 사회자로 나서며, 가수 설운도 · 추가열 · 강여름 · 제이봄 등이 흥겹고도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음사는 "도심 속 사찰에서 음악을 통해 가을의 정치와 여유로움을 느끼고, 이웃과 넉넉한 마음의 불씨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582-8609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국 2017 가을 산사음악회 일정

장소	행사명	일시
고양 흥국사	제3회 산사음악예술제	9월 23일 오후 7시
남양주 불암사	제9회 산사음악회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양평 용문사	제17회 천년향기 나눔 산사음악회	9월 23일 오후 3시
화순 개천사	범능 정세현 음악에 물들다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강화 전등사	가을음악회	10월 14일 오후 7시
서울 관음사	2017 산사음악회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



불교음악원, 박범훈과 함께하는 불교음악여행

취임 후 첫 공식 행사… 9월 20일 국립극장서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박범훈과 함께하는 불교음악여행'을 9월 20일 오후 8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박범훈 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사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화되거나 민간 음악화된 불교음악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불교음악 창작곡과 전통음악, 민요 등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그 과정과 실체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전통불교의례인 '예불'과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의 짓소리가 무대에 오르며, 전통불교 의례무용인 '나비춤'과 민속무용의 백미인 '승무'는 대조(對照) 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밖에 △선정 스님의 '화청'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유지숙 명창의 '비나리' △불교음악에서 발전한 황해도 민요 '산염불'과 '반메기 비나리' △최수정 명창의 '경드름 반야심경' '탑돌이'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안숙선 명창의 남도민요 '보렴' 등 공연이 마련됐다.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연구, 교육, 창작, 연주, 포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한 생활찬불가 운동에도 앞장서고자 공연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BBS TV특강

10월 10일부터 12회… 수강료 12만원

세계명상수행승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특강에 나선다.

'각산 스님의 BBS TV특강'은 '깨달음의 16단계'란 주제로,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12회 서울 마포 BBS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된다.

각산 스님은 이번 특강에서 위빠사나 핵심 명상법인 수식법이 설명된 〈안반수의경〉에 기반한 최초 명상 강의를 펼친다. 체계적 호흡 명상과 함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도 전수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4가지 소주제 △몸의 호흡을 기반으로 한 '신념처 명상' △환희의 감미로운 체험을 기반으로 한 '수념처 명상' △마음의 자유세계를 기반으로 한 '심념처 체험명상' △지혜통찰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법념처 명상' 등으로 구성된다.

각산 스님은 "성공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만족이 행복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000명 마감이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만공회원, 세계명상대전 참가자, 각산 스님 명상입문반 수료자는 50% 할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BS불교방송 홈페이지와 참불선원 카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577-3696 박아름 기자

설잠 · 추파 스님 이을 대문장가 어디에?

대전 반야사, 9월 23~24일 제4회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

대전 반야사(주지 성민)와 재단법인 아천중소문화재단은 제4회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을 9월 23~24일 대전 대청호 일대에서 개최한다.

매월당 설잠 김시습 스님은 최초의 한글소설 〈금오신화〉를 지은 조선의 대문장가다. 또한 추파 스님은 표령대군의 후손으로 19세기 문장가였다. 설잠추파문화예술대전은 이 두 스님의 사상과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행사다.

참가 분야는 백일장, 미술, 음악으로 초 · 중 · 고등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시상내역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상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대전시장상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은 9월 18일까지로, 시상식은 대회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3시 대청호 야외음악당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열린다. (042)932-1369

박아름 기자

서방의 극락정토, 꽃과 새들로 피어나다

불일미술관, 고승희 작가 6번째 개인전 '淨土華'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고승희 작가의 6번째 개인전 '淨土華(정토화)'를 개최한다.

고승희 작가는 서방극락세계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작가다. 1번째 개인전 '서방정토극락세계'(2012)와 제2회 개인전 '散華'(2014)부터 제5회 개인전 '寶相華'(2017)에 이르기까지 줄곧 서방정토세계를 표현해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고 작가의 불화는 아름다운 꽃과 새 등을 소재로 맑고 청정한 불국토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화려한 꽃들은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평안함을 자아낸다.

불일미술관은 "고 작가는 정토를 장엄하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상서로운 새들의 음성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서 "찬란한 빛, 진리의 향기로움을 품고 정토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고 작가도 진심을 다해 피어오르길 바란다. 또한 부처님 말씀이 꽃향기와 신비로운 새들의 음성처럼 퍼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미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승희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불교미술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제1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비롯해 Paris Arts Collection 특선(2008), International Culture Art Exhibition 동상(2009), France Paris New Year Exhibition 금상(2014) 등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극락음極樂音 | 45×45㎝, 면본 채색, 금니, 201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흰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